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불품(術佛品) ②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어떤 악도 짓지 말고 선한 일은 모두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릇 깨닫기 하면 그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이다

佛爲尊貴 佛爲尊貴 斷無無尊 단무음 諸群中難 諸群中難 難離離心 難離離心 難離離心 難離離心

부처님은 존귀하신분 번뇌 끊고 음심 없으니 석가족의 영웅이시라 온 무리가 그 마음 따르네

快哉福報 所願皆成 敏於上寂 自致死厄

쾌재로다 복의 과보여

만일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 법과 성스런 무리에 들어가 의지하면 고집멸도 사성제 알게되어 반드시 바른 지혜 보게되리

生死極苦 從離得度 度世八道 斯除衆苦

생사는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따르면 건널 수 있나니 세상 제도하는 팔정도라면 온갖 괴로움 모두 없으니

自歸三尊 最吉最上 唯願有是 度一切苦

자귀삼존 최길최상 唯願有是 유독유시 度一切苦 도일체고

귀중한 삼존에 귀의하면 이것이 가장 길하고 가장 으뜸이라 오로지 이법만이 홀로 있어서 일체의 고통에서 건져준다

士如中正 志道不墮 利哉斯人

사여중정 志道不墮 지도불간 利哉斯人 이재사인

사여중정 지도불간 이재사인

이 눈발이 만나기 어렵고 또한 그는 남 바길 바 아니니 그가 태어나 사는 곳 어디서나 온 겨레 큰 경사 일케된다

諸佛興快 說無量法 衆聖和快 和則常安

부처님 나심에 흥이 솟고 법을 설하시니 즐겁도다 온 무리 함께 유쾌하니 그 속에 어우르면 언제나 편안하다

龍眼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법 의지하면 고집멸도 알게되어 지혜 보게되리”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네 위없는 적멸에 재빨리 들어 스스로 열반을 이루셨네

或多自歸 山川樹神 願立圖像 祭祀求福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산천이나 나무 신에 귀의하고 묘당 세워 화상 그려놓고 거기에 제사하며 복을 구하네

自歸如來 非吉非上 彼不能來 度我來苦

이와같은 귀의란 길하지도 옳지도 않아서 그런 짓은 모두 들어질 수 없어 온갖 괴로움 벗겨주지 못하네

如有自歸 佛法聖尊 道德四諦 必見正覺

여유자귀 불법성존 도덕사제 필견정해

묘련스님 (묘현사 주석)

부처님께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모두 당신과 똑같이 성불시키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법 중생을 위해 설하신 최고 최상의 요의경(了義經)이며, 진실한 대승(大乘) 일승원교(一乘圓教)인 <법화경> 방편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래 세운 사원은(我本立誓願)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평등해져서(欲令一切衆) 다름이 없게 하려 함이라(如我等無異) 내가 옛적에 소원한 바와 같이(如我昔所願) 이제 이미 만족하였으니(今者已滿足)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化一切衆生) 모두 불도에 들게 하겠노라(皆令入佛道)

나는 1924년 음력 2월 초6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일명 쇠꼬리)에서 5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그들의 폭압정치와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살기 어려운 때였지요.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낸 나는 부모님이 상경하시는 바람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니다. 정성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한 때였으나, 집안 형편과 반일감정이 강한 부친의 영향으로 계산국민학교(나중에는 보성국교도 바뀜) 3년을 마치고 중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구열이 강했던 나는 조선총독부 도서관(국립도서관)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여러가지 책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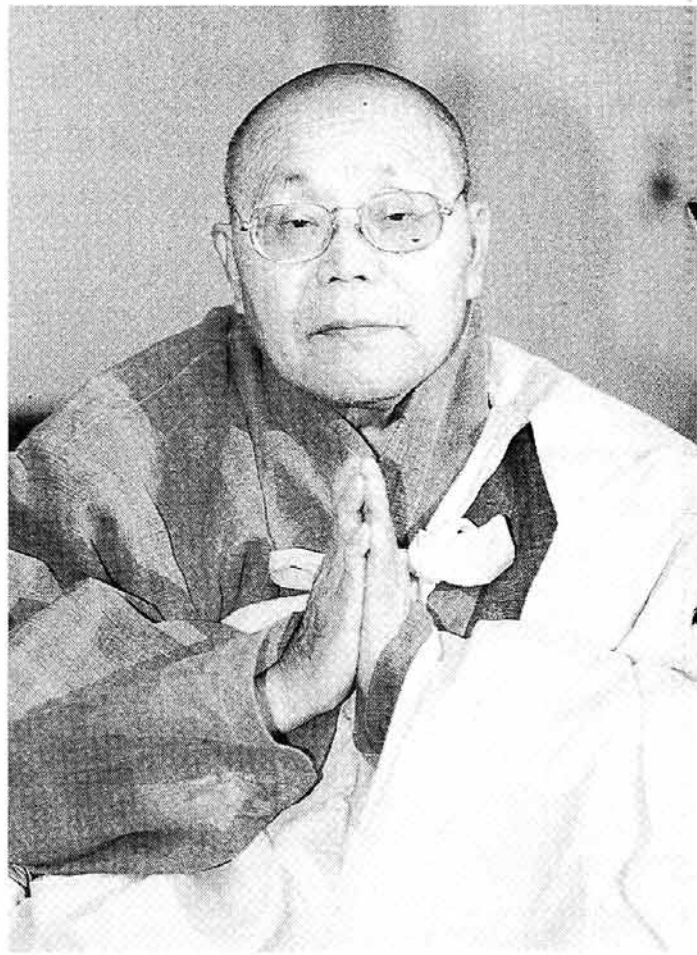
친문학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음악술서(陰陽術書)도 탐독하였으나, 나이가 되고 유교 불교 등에 관련된 책들을 열람하였습니다. 스무살도 안되는 나이에 철학 과학서적 등 어렵고 좋은 책들만 골라 보니까 하루는 열람과의 책을 내주는 분이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해동경원에서 김적음(金寂音)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생전 처음 <신수대장경목록>과 <도상부(圖像部)>를 열람하였고 <기도경(祈禱經)>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은 크나 큰 사건을 겪고 난 뒤였어요. 1945년, 그러니까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눌렀던 우리 민족의 통탄이 해방의 기쁨으로 다가 온 해에 여음이었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젊은 나이에 맞이한 만세의 물결, 그리고 내 생의 좌표를 바꾼 일이 그 해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해 무더위가 극심하던 8월 9일 나는 대동강 근처 추율리에 주재하고 있는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광양 조병창(造兵廠)으로 징용가서 그어말로 뼈마지게 일하고 인간대접도 못받으며 살던 나는 그 날 사상범이란 죄목을 달고 헌병대에 구속된 것입니다. 단군성조의 역사와 백범 김구선생의 일대기, 도산 안창호선생의 애족관과 단체 신재호선생의 민족사관 등 이런 책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다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 이유가 되었지요.

헌병대에서는 헌병들이 다짜고짜 몸을 움아매고 독립군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고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게서 기대하던 대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자 나를 감방에 처 넣었어요. 피땀으로 얼룩진 육신, 밀도 끝도 없이 감방에 갇혀 버린 현실에 망연자실 하였습니니다. 그 망연함속에서 나는 생사문제를 배저리게

- 1924년 장성 생
1946년 서울 안양암에서 출가후 해인사에서 효통스님 문하에서 공부
강원선방을 다니며 남자의 길을 걸다가 묘현사 참진
1일1식을 철저히 지키며 출가 후 암말을 안 식는 고행으로 일관하며 <법화경> 공부에 매진



“자유와 해탈을 갈망하면서 왜 자기의지대로 살지못하나” 의문 풀기위해 부처님께 귀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해탈을 갈망하는 인간은 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구속되어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육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말인가.” 이 때처럼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허망함과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다가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충동이 느껴졌어요. 살아서 이곳을 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을 염하기 시작했어요. 천 개의 눈과 손으로 고난에 처한 중생을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경건 말씀에 확신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날 역시 관세음보살을 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꿈 풀러날 것이니 걱정마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분명 꿈이었으며 꿈 같지 않은 체험을 한 후 나는 일체의 ‘무조건 항복’이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실감했습니다.

이후 나는 감방에서 새웠던 서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종교인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도 만나고 이런 저런 도서도 구해 읽었지만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감방에 구속된 육신을 구해 준 관세음보살님의 영상이 계속 떠올라 23세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6년 12월 8일이었는데, 서울 동대문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 이태준(李泰俊)스님게서 은사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생사의 문제를 푸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대장부로서 태어난 보람을 다하는 날일 것이란 은사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행자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안양암에서 열리는 법회는 물론 개운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법회를 찾아 다니며 큰스님들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강산 유점사에도 들러 당시 명성이 높던 화응(華應)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했고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법화경>을 은연중에 만나게 되었고 소백두타(小白頭陀) 안진호(安進湖)스님이 지은 토(土) 달린 <법화경>을 수지독속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교학자인 김

주관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팔로화정’을 특허로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형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 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분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유통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향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다.

분내용량 : 1.8ℓ (약0.6되)
유통방법 : 1일2스프(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清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듬년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強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분내용량 : 4.2ℓ (약2되)
유통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격 : 30만원 (2개월분)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1
여래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